

# article

a journal of contemporary art  
may 2014 issue #34

contains 20% art portrait; 25% art passage; 30% feature

## Artist as Cultural Researcher

시각예술저널 경향 (아티클)

10,000원

05



9 772234 177001  
ISSN 2234-1773



김홍석. MOP-131014 걸레질-131014. 나무에 우레탄 페인트. 121×121cm. 2013  
사진 국제갤러리 제공



서용선. 동학사. 캔버스에 아크릴. 60.5×72.5cm. 2014

## 태도 특징적 프로젝트

박상준 객원기자

**김홍석, Blue Hours**  
국제갤러리 2관 / 4. 10-5. 11

시각예술의 태도를 작업의 모티브로 삼는 김홍석의 전시가 개최되었다. 지난해 3월 삼성미술관 플라토(이하 플라토)의 <좋은 노동 나쁜 미술>에서 보여줬던 작가의 관심은 이번 전시에도 이어져 나타난다.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람 객관적> 프로젝트는 작가의 생각을 일용직 노동자 또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통해 시각예술로 표현한 작업이다. 작품을 처음 생각한 사람, 그것을 실물로 만든 사람, 작품을 전시장에 운반한 사람, 전시장에 설치하는 사람, 보러 오는 사람처럼 시각예술 작업에는 많은 사람들이 개입한다. 그러나 그 노력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김홍석 작가는 이처럼 가려진 사람들을 조명하면서 작품의 주체에 대해 질문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노동자의 작업 시간이 제목에 표시된 <시간당 예술> 연작(<Untitled(1 hour, Ms. Yi)>)과 걸레질 회화 연작(<MOP-131013>)이 제시되었다.

또한 <Untitled(32 hours)>와 <15 breaths>는 일상 사물인 플라스틱 바구니나 풍선을 레진이나 브론즈로 정교하게 다시 만든 작품들이다. 오브제로 사용되지 않던 물건들을 시각예술 영역으로 가져와 가치를 부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플라토 전시의 <사람 건설적> 작업과 연결된다. 이번 전시에 처음으로 선보인 <DIN A> 연작은 A0부터 A4 종이 크기의 평면 레진을 구겨놓은 작품들로, 건너편 벽에 걸린 <불가능한 완성을 위한 정교한 도면>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DIN A> 연작의 곡면은 우연히 생성되었지만, <불가능한 완성을 위한 정교한 도면>은 그 곡면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측정해서 상세한 도면으로 표현했다. 이 두 연작은 우연을 정량화해서 무결점의 완벽에 도달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불가능한 욕망을 보여준다. 작가 개인뿐만 아니라 전시 지원금과 관련된 제도에 이르기까지 태도(attitude)는 시각예술의 민감한 주제다. 작품의 주체와 객체, 문화예술 정책의 집행자와 참여자 모두 윤리를 성찰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동시대 시각예술 현장에서는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점에서 김홍석 작가의 태도 특징적 프로젝트들은 낯설면서도 익숙한 것으로 당위와 현실을 성공적으로 뒤섞고 있다.

## 역사화이자 풍경화 '단종이야기'

**역사적 상상\_서용선의 단종실록**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5. 2-7. 27

화이트블럭이 지난 3년간 갤러리로서의 활동을 마감하고 사립미술관으로서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이란 명칭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러한 변화를 기념하고자 이곳은 28번째 지속하고 있는 서용선의 '단종이야기'로 구성된 특별전 <역사적 상상\_서용선의 단종실록>을 개최한다.

1987년부터 단종에 초점을 맞춰 작업을 시작한 서용선은 이후 계유정난과 단종 복위운동에 따른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을 다룬 작품들을 여러 차례 발표하며 화단의 주목을 받아 왔다. 그의 단종이야기가 특별한 관심 속에 놓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역사적 상상화가 과거에 기록된 교훈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양의 역사화, 그리고 권력자의 입장에서 기록을 남기는 동양의 방식과 다른 자세를 취하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의 작품은 역사적 사건에서 재료를 가져온다는 면에서 기존의 방식과 유사하나, 그의 특이성은 무엇보다 현대인의 입장에서 과거를 지속적으로 상상하고 사유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 있다.

또한 이러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서용선은 관련 서적과 논문을 조사하는 등 기초자료들을 모으고, 역사적 인물과 그 배경이 되는 장소를 구체화하기 위해 단종이 숨을 거뒀던 영월의 청령포부터 매월당 김시습이 단종의 영혼을 위해 제를 지냈다는 동학사 경내의 숙모전, 단종복위 운동 실패로 참절당한 이들의 시신이 버려진 영주 소수서원 근처의 죽계천에 밤마다 영혼들의 울음소리가 요란하자 이를 달래기 위해 글자를 새겼다는 '경(敬)자바위' 등 관련 지역들을 답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과 그것이 일어난 특정 장소를 함께 담아내는 방식은 풍경화이면서 동시에 역사화인 그만의 독특한 경지를 보여준다.

이번 특별전에서 그는 단종 사건의 주변 인물로 알려졌던 안평대군을 소재로 한 신작과,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거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를 그린 '역사 풍경화'를 다수 선보인다. 또한 화이트블럭은 단종 관련 작품들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의미로, 작가가 모은 자료들-답사 과정을 영상으로 담은 기록물, 관련 지역의 역사서들 등도 함께 공개한다. 전시를 입체적으로 구성해줄 부대행사로는 연극 <세조애걸>(연출 김남건), 박동레코드의 미디어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다.